어린이 책꽂이

▲아인슈타인 : 알베르트는 좀 이상해=20세기 세계적인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의 엉뚱하고 호기심 많은 어린시절을 다뤘다. 아인슈타인은 선생님들을 실망시키고 친구도 많지 않은 특별한 어린시절을 보냈지만 뛰어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발휘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열린 어린이·9천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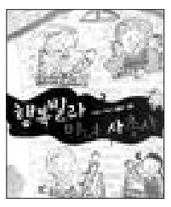
▲행복빌라 미녀사총사=같은 빌라에 사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통해 더불어 사는 의미를 일깨운다. 행복빌라에는 101호 뻐꾸기 할머니, 201호 우리 할머니, 301호 팝콘 할머니, 그리고 주인공 신지현의 할머니 등 미녀 4총사가 생활한다.

〈문학과 지성사·8천500원〉

▲별이 되고 싶어=자연과 생명, 꿈과 삶을 돌아보게 하는 여섯 나라 문화이야기를 담은 그림책. 우리나라 전통 장례문화인 토장부터 풍장, 수장 등 세계의 장례문화가 옴니버스 형식으로 구성돼 있다.

〈창비·9천800원〉

▲행복한 이티할아버지=자동차 사고로 온몸에 화상을 입은 두밀리 자연학교 교장 채규철 할아버지의 이야기. '이미 타 버린' 사람이란 뜻에서 '이티(ET)'로 불리는 채 할아버지는 두밀리 자연학교를 세워 아이들에게 자연속에서 맘껏 뛰놀 수 있는 자유를 선물한다.



〈아이세움·8천500원〉

▲개똥도 아끼다 - 자리고비일기=천하의 구두쇠, 자리고비 영감의 놀라운 근검절약 생활이 담겨 있다. 조선시대 충청도 음성고을에 살았던 자리고비 영감이 쓴 일기를 통해 아껴쓰는 생활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시공주니어·7천원〉

세계를 움직이는 120명의 사교클럽

빌더버그 클럽 다니엘 에스툴린 지음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다. 끝없는 발전을 가져다 줄 것만 같았던 과학기술은 환경오염을 가져왔다. 세계는 우리가 분석하고 전망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이런 불확실한 시대에도 미래를 전망하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세계를 움직이는 이들은 있게 마련이다.

매년 5월이면 토니 블레어, 앨런 그린스펀, 힐러리 클린턴, 빌 게이츠, 조지 소로스, 록펠러, 헨리 키신저 등 세계 최정상의 리더로 꼽히는 120여 명의 인사들이 한 사교클럽에서 뭉친다. 지난 50여 년간 지구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집단으로 꼽히고 있는 '빌더버그 클럽'이다.

이 클럽은 아시아, 중동, 남미, 아프리카 사람들은 초대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또 비밀준수 서약을 하기 때문에 무엇이 논의됐는지 조차도 알 수 없다. '유럽과 미국의 권력 엘리트들의 국제적인 압력단체' '세계지배를 계획하는 비밀결사'라는 추측만 있을 뿐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져 있는 모임이다.

기자이자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활동중인 다니엘 에스툴린이 지난 16년간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며 빌더버그 클럽을 추적한 결과를 상상력을 가미해 '빌더버그 클럽'으로 펴냈다.

저자는 "이 클럽을 세계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 제국'"이라며 "세계인들에게 거짓말로 환상을 심어줘 세계 유일의 정부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세계 각지에서 테러를 일으키고 유가를 올리고 금융위기를 고조시켜 불안해진 대중이 자발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반납하게 만들고 전체주의를 지지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저자에 따르면 빌더버그 클럽은 1954년 네덜란드의 베른하트 왕자 주도로 만들어졌다. 프리메이슨 같은 일종의 '비밀결사'인 이 단체에는 아이젠하워 이후 미국의 모든 대통령과 유럽 각국의 왕실,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매년 비밀리에 열리는 빌더버그 회의에서 세계의 모든 정책이 결정된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또 빌더버그 클럽의 정책을 거스르는 지도자들은 암살되거나 권력을 잃었고 클럽에서 지명한 인물이 새 지도자에 오르는 등 빌더버그 클럽의 영향력은 막강하다고 말한다.

음모론을 주장하는 책답게 원자력에 반대하는 환경운동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저지해 경제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음모이며 금연운동은 사생활을 제도적으로 억압하기 위한 빌더버그 클럽의 음모라는 다소 황당해 보이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연방준비은행이 탄생되는 과정, 네오콘(미국의 신보수주의)의 철학적 원류를 중세 템플기사단과 프리메이슨으로부터 끌어내는 등 독자들의 지적 욕구를 자극하는 내용도 많아 음모론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흥미롭게 읽을 수 있다.

부록으로 빌더버그 회합에서 오간 이야기와 빌더버그 클럽 회원들의 자료사진도 함께 실렸다. 〈랜덤하우스코리아·1만5천원〉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지난 2005년 5월 5일 열린 빌더버그 회의 개회 첫날 모습. 독일 경찰이 회의장 주변을 감시하고 있다.

수단 내전 참상 온몸으로 전하는 실화

잃어버린 소년들 벤슨 뎅와 3인 지음

21세기 '최악'의 인종 학살로 불리는 수단 내전. 최소 20만 명이 죽고 25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내전으로 집과 부모를 잃은 아이들만도 2만 여명에 달한다.

'잃어버린 소년들'은 13살 소년들이 수단 내전으로 부모를 잃고 미국으로 이주할 때까지 겪은 고난과 그 이후의 활동을 담은 책이다. 책에는 소년들이 폭탄을 피해 사자, 전갈, 악어가 사는 숲으로 달려간 일, 살기 위해 오줌을 받아먹고 진흙을 파먹었던 일화 등 1천600㎞에 이르는 피난길에서 겪었던 험난한 과정이 고스란히 담겼다.

책은 전쟁의 참혹한 현실을 보여주면서도 불굴의 의지로 역경을 헤쳐나가는 소년들의 모습을 통해 희망을 보여준다.

국제 구호 기구의 도움으로 미국에 정착한 소년들은 이제 청년이 돼 아프리카 토속풍의 그림을 그리는 화가, 전통 음악 연주자, 트럭 운전사가 돼 미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현암사·1만3천500원〉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조선 남종화의 거장 허련의 일대기

소치 허련 김상엽 지음

추사 김정희가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애제자 허련(1808~1893)은 남종화의 대가이자 19세기 조선 말기 대표화가로 꼽힌다.

'소치 허련'은 '조선의 화가들' 시리즈 첫 책으로 오원 장승업과 함께 '조선 말기 화단의 거장'으로 불리는 허련의 작품과 생애를 담았다.

문화재청 문화재감정관인 김상엽이 허련과 관련된 기록, 주변 인물과의 일화를 토대로 허련의 삶을 일대기 형식으로 되살렸다.

책에는 유배지 진도의 몰락한 양반 가문 출신인 허련이 초의선사, 추사 김정희를 스승으로 모시며 이름난 화가로 입신하기까지 과정을 비롯해 가족에겐 무심했던 한량의 모습까지 허련의 다양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당시 조선 사회와 문화계의 단면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책 출간과 함께 국립광주박물관에서 '허련 탄신 200주년 특별전-남종화의 거장 소치 허련 200년'(8일~8월 31일)을 연다. 〈돌베개·1만3천원〉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작가와 함께하는 책 읽기

'이상적인 남편' '옥중기'

내 영혼을 뒤흔든 오스카 와일드

이십 대의 끝 무렵 나는 희곡 읽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다. 그 전부터 희곡에 대한 관심이 많기도 했고 주위에 연극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탓도 있었지만, 내가 좋아하는 대부분의 작가가 극작가라는 점도 작가지망생으로서 많은 부분 동경을 차지했던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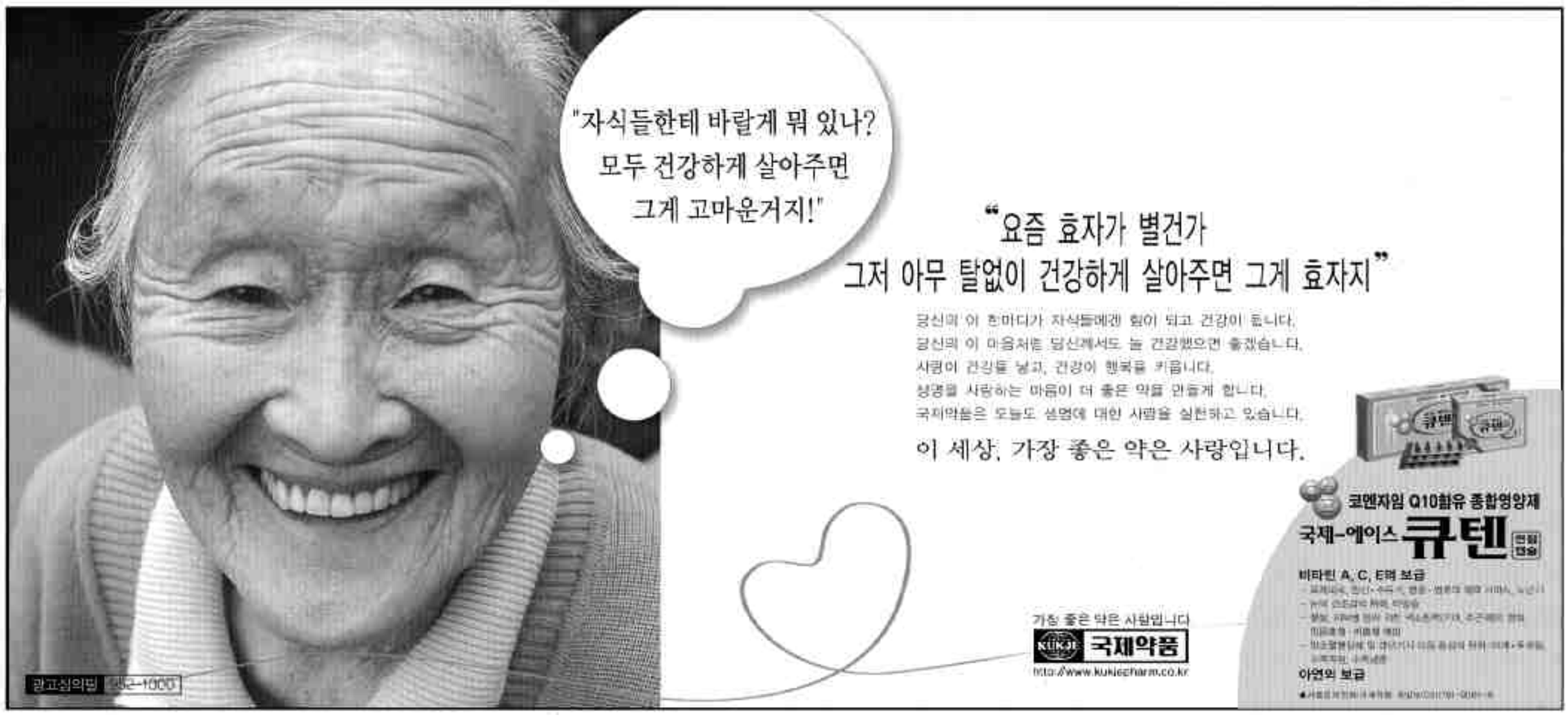
글을 쓰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소설이나 시나리오를 쓰고자 했던 것과 달리 소설이나 시나리오는 내게 전혀 매력을 주지 못했다. 물론 그렇다고 내가 그들을 무시하거나 소설읽기를 게을리했던 것은 아니다. 다만, 나는 당시 한국의 기숙사 문학 같은 분위기에 질려 있었고 거실상담 같은 소재나 일화로 이야기를 정리해가는 모국어의 풍경에 환멸에 가까운 논변을 준비하고 다녔던 것이 사실이다.

바야흐로 한국소설은 상당한 대중화를 누리고 있었지만 어쩐지 내겐 그것이 더욱 탐미나 실험의 쇠퇴처럼 보였고 특강을 오곤 하던 소설가들에겐 독설이나 내뿜고 다니던, 객기도 무량창창 했던 시절이었다.

자연스럽게 나는 시적이면서 동시에 공간에서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탄탄한 서사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희곡이 내게 맞는 장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사무엘 베케트를 비롯해서 아르토, 마리아 콜테스, 하이너 뮐러, 장주네, 등의 희곡 등은 무대를 상상하고 읽는 재미 이전에 말의 연금술에 먼저 매혹 당해야 한다.

나는 아직까지도 쉬운 감동은 별로 신뢰하지 않는 편인데 희곡은 쓰는 것에도 읽어내는 데에도 많은 시간과 결여를 필요로 해서 더욱 사람을 곤궁에 빠지게만든다.

한 편으로는 시인이 반드시 되고 말겠다는 염원이 있었지만 희곡에 대한 짝사랑 또한 깊었다. 그것은 욕심이라기보다는 운명 같아 보였다. 대학노트에 무수하게 덤불처럼 자라던 글씨들은 대부분 '극적'이었다는 점에서 나는 내가 살지 못하는 공간을 자주 상상하곤 했던 것 같다.

그 중에서도 더블린의 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내 영혼에 깊은 스캔들을 일으키곤 했는데 그의 희곡들은 기존의 질서와 낡은 권위의식에 투쟁하며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야유를 받으면서도 자신의 언어로 세상과 맞서고 있는듯 했다. 그의 삶 역시 일생 가난과 고독으로부터 벗어나기 힘들었지만 그는 자신의 언어를 존경하며 그 언어에 섬세한 자신의 눈보라들을 날려주곤 했다. 그의 '살로메' '원더미어 부인의 부채' '이상적인 남편' 같은 희곡 등은 작금의 문학에 심문을 가하는 것 같다. 그는 '남색'이라는 도덕주의에 희생양이 되어 감옥에 갇히는 불행도 겪어야 했는데 그 결과 옥중기 문학의 금자탑인 '옥중기'를 쓸 수도 있었다. 그는 옥중기의 말미에 이렇게 써 두었다. '그 누구도 나를 쫓아와 나를 상처주지 못하도록 바람을 보내 나의 발자국을 지워 줄 것이다' 삶이 저속해서 그는 썼다. 나는 희곡을 쓰면서 내가 써내지 않으면 안되는 '불구'에 대해 많은 이해를 받았다. 동방의 작가 지망생들에게 오스카 와일드를 권한다.

김경주 〈시인〉